

# 민족국가 건설 과정의 시각으로 본 모택동의 문예사상\*

皮 垆 勳\*\*

## <목 차>

1. 모택동 문예 사상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그 한계
2. 민족주의 일반 이론과 중국적 민족주의
3. 모택동의 문예이론 - 계급과 민족의 이중변주
4. 소결 및 가능성의 탐색

## 1. 모택동 문예 사상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그 한계

모택동은 1938년 10월 『중국공산당의 민족전쟁중의 지위(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를 발표하고, 이어 1940년과 1942년에 각각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이하 ‘문예강화’로 약칭)』를 발표한다. 위의 글들을 통해서 모택동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배격하고 중국적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응용된 ‘중국화 된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고 특히 문화 영역에 있어서, ‘중국 민중의 즐겨 듣고 즐겨 보는 중국적 작품, 중국적 기풍’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과 『문예강화』에 대한 대다수의 평가는 ‘대중화’로 그 초점이 모아진다. 왕요(王瑤)는 “대중화는 신문학사의 중심문제이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 高麗大 中文科 碩士課程

며, 어떻게 문학을 효과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하게 할 것인가는 신문학 운동의 중심 결절점(環節)이다.”라고 말하며 모택동의 『문예강화』가 “소자산 계급의 문학적 취향을 넘어 노동자·농민·병사, 즉 광대한 인민대중을 위한 문예이론”을 제공한 이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劉綏松 역시 당시 문예정풍 운동의 배경을 “대다수의 작가들이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떻게 창작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모택동의 『문예강화』에 대하여 “연안시기에 존재했던 각종 착오적인 문예 경향과 새로운 면모들은 모두 모택동 동지가 규정한 농·공·병 방향 문예가 명확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王瑤, 劉綏松 등 문학사를 사회주의 중국 초기에 확립했던 학자들 이외에, 신시기 이후 문학사를 저술한 학자들 역시 모택동의 문예 이론을 대중화라는 코드로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는 커다란 틀에서 합의하고 있는 듯하다. 운유민은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의 민족전쟁중의 지위』, 『신민주주의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민족형식 논쟁’에 대해 언급하며 “‘민족형식’에 관한 토론이 신문학의 대중화를 촉진시킨 점에 대해서는 이왕의 많은 저작들에서 긍정했었다. 필자는 이번 토론이 실제상에서는 신문학의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하며 당시 연안의 작가들이 “무시로 자기의 문학 관념과 형식 및 수법을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층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 조절’이라는 기존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작가의 새로운 독자층에 대한 순응’이라는 기본 입각점은 결과적으로 운유민의 주장 또한 모택동 문예이론과 그에서 비롯된 『문예강화』를 대중화라는 중심틀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모택동 문예사상과 대중화를 연계시킨 평기는 관방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를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다. 郭若平은 ‘문예대중화’ 논쟁과 ‘민족형식’ 논쟁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문예대중화 논쟁이 풀 어내지 못한 보다 광대한 중국 인민 대중의 즐기는 문예에 대한 문제, 즉 ‘민족

화'에 대한 문제는 이후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문예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sup> 그의 논지에 따르면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문예론』과 『문예강화』는 1937년 말부터 시작된 ‘헌 병에 새 술 담기’로 대표되는 ‘민족형식 논쟁’에 대한 새로운 서사 방식의 모범을 확립한 것인 동시에, 대중화의 한계를 ‘민족화’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문예 대중화를 통해 돌파하려 한 것이다.

“대중화의 한계를 민족화라는 보다 철저한 문예 대중화를 통해 돌파하려 하였다.”는 앞의 평가는 곧 민족화와 대중화를 동일시한 셈이다. 『문예강화』를 비롯한 모택동의 문예사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중화와 민족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국 주류 학계의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 문예의 민족성에 관한 최근의 저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譚好哲 등이 저술한 『現代性與民族性』이라는 저서에서 『문예강화』는 “문예 민족화와 대중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며, 이로써 문예론은 새로운 규범, 새로운 관념, 새로운 시대 특징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sup>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회주의 중국 건국 초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택동의 문예 사상을 대중화 논의와 연결시켜 평가하려는 중국 주류 학계의 논의는 최근 들어 모택동의 문예사상과 『민족형식 논쟁』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족’<sup>3)</sup>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과 『문예강화』를 대중화 논의와 연결시켜 평가하려는 시도는 40년대를 30년대의 결과로서만 보려는 시각과 접맥되어 있다. 『신민주주의론』과 『문예강화』가 30년대 ‘프로문학 운동’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보다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해서는 문학 수용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농민·병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분

- 1) 郭若平, 『毛澤東新民主主義文藝觀形成的思想資源』, 『黨史研究與教學』編輯4部, 2003년 9월
- 2) 譚好哲, 任傳霞, 韓書堂 지음, 『第二編 中國現代文學理論民族性的歷史形態』, 『現代性與民族性 - 中國文學理論建設的雙重追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315쪽.
- 3) 민족(nation)과 민족주의(nationalism)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모택동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국 문예 이론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족은 정치적 구성력을 지닌 민족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을 일단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하여 사용한다.

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40년대는 30년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50년대 이후, 즉 당대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40년대에 제기되었던 모택동의 문예 이론을 30년대와의 연관관계에 국한하여 평가한다면 50년대 이후 나타나는 문예 대상의 고착화 현상 등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모택동의 언설 속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풍격’, ‘(중화)민족’ 등의 용어는 용어 그 자체로 설명되는 균질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의 문장 속에서 ‘중국적 풍격’이란 말의 함의는 분명치 않으며, ‘누가 인민인가?’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농민·병사 그리고 도시 소자산계급’<sup>4)</sup>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인민에 대한 그러한 계급적 정의가 중국적 풍격 혹은 민족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민족’과 ‘중국적 풍격’이란 개념은 모택동 이론 속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4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민족형식 논쟁’과 50년대를 거쳐 60년대에 폭발한 ‘문화대혁명’ 기간의 문학 이론과 작품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모택동의 문학 이론 속에 나타나는 ‘민족’과 ‘중국적 풍격’ 등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을 무시하고 그것을 균질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채, 무조건적으로 대중화 논의와 연계시키는 평가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汪暉를 비롯한 소장 학자들은 모택동의 문예이론 안의 민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고찰 하면서 그것을 민족-국가 건설 담론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汪暉는 “中國作風과 中國氣派는 곧 현대 민족국가 체계 속에서 중국적 문화의 동일성 문제”라고 말하며, ‘민족형식논쟁’을 “20세기 40년대 발생한 현대 민족문화의 동일성과 주체성을 형성·창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정의한다.<sup>5)</sup> 汪暉는 5·4 이래의 문학운동을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이론적 틀로 바라보며, ‘민족’ 혹은 ‘중국적 풍격’ 등의 개념어를 균질적인 개념이 아닌 ‘형성과정’으로서의 정치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4) 毛澤東,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毛澤東選集』, 人民出版社, 857쪽.

5) 汪暉 지음, 「附錄一 地方形式, 方言土語與抗日戰爭時期“民族形式”的論爭」,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三聯書店, 1497, 1498쪽.

黃科安은 汪暉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민족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론의 틀을 받아들인다. 그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개념에 근거해 모택동의 문예이론을 민족국가 건설(nation-state building)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黃科安의 주장에 따르면 “‘민족의 적을 물리치고, 민족해방의 임무를 완수하는 하자’는 모택동의 주장은, 실제로는 연안 중공 정권이 현대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黃科安 역시 汪暉와 마찬가지로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 틀을 통해서 모택동의 문예방침을 ‘민족국가 건설’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汪暉와 黃科安 등을 비롯한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논의들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들이 ‘형성과정’으로서 민족개념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기존의 ‘민족화=대중화’라는 단순 공식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서구 민족국가 이론의 틀을 그대로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논의에서 형성과정으로서의 민족개념을 논의에 적용시키고 있는 하지만 모택동의 문예사상이 ‘중국적 민족주의’의 형성과정과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모택동 문예 사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는 무비판적으로 민족화를 대중화와 직결시키는 기존의 평가를 비판하고 모택동 문예사상의 사상적 함의와 위치를 중국적 특성에 맞는 민족이론과 연계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 2. 민족주의(Nationalism) 일반 이론과 중국적 민족주의(Chinese Nationalism)

1882년 프랑스의 사상가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 1823~1892)은 소르본 대학에서 「민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을 한다. 이 강연을 통해 르낭은 민족(혹은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정의를 내리며 민족국가의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종도 언어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상, 이해관계, 애정, 추억, 희망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조국이지요. 사람들이 함께 전진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싸우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국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sup>7)</sup>

르낭은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민족개념이 언어, 종교, 인종 등으로 정의된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며 민족 개념은 그 민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낭의 이러한 주장은 민족(혹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언어, 인종, 종교와 같은 기준으로 단일하게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소속 의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민족(nation)이란 개념은 19세기 유럽의 경험을 기초로 구성된 개념으로 르낭의 주장처럼 종교와 언어, 종족 등의 개념으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민족’의 일차적 의미, 그리고 관련 문헌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의미는 정치적인 것으로, 민족 개념은 근대적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닌 것이다.<sup>8)</sup>

7) 에르네스트 르낭 지음, 신형선 옮김, 「제2장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102쪽, 주석 78)에서 재인용.

8) E.J 홉스봄 지음, 강명세 옮김, 「제1장 새로운 것으로서의 민족」,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

Ernest Gellner는 민족을 정치적 원칙에 따르는 개념<sup>9)</sup>으로 정의하고 Max Weber의 근대 국가체제 건설의 이론에 근거하여 민족주의를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체제가 건설되어 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부산물로 파악하였다. Gellner가 주장하는 민족은 산업화 과정을 따라 형성되어 가는 근대적 통제 국가체제와 그 형성의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해감에 따라 강력한 국가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해지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국가는 자기 재생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Gellner의 민족개념은 국가 없이는 설명되지 않으며 국가 없이는 민족도 민족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Benedict Anderson은 Gellner의 주장을 좀 더 진전시켜, 국가가 형성된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주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Anderson은 “민족주의는 민족들의 자의식에 눈뜬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 낸다.”<sup>10)</sup>는 Gellner의 주장을 인용하며 민족을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sup>11)</sup>로 정의한다. Anderson의 민족에 대한 정의가 Gellner의 그것과 다른 것은, Gellner의 경우 민족을 산업화와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유럽중심주의적 맥락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Anderson은 민족주의가 민족을 상상케 한다는, 유럽의 산업화 맥락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의 정치적 구성력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Anderson의 이러한 논의는, 민족이 민족주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민족 혹은 민족주의란 개념이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닌 정치적 구성력에 의해 가변적으로 정의되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민족을 가변적인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면 모택동의 문예이론을 해석하는 독

주의], 창비, 34~35쪽.

9) Ernest Gellner 지음, 1. Definitions, *NATIONS AND NATIONALISM*, Blackwell Publishing, 34, 35쪽 - "Nationalism is primarily a political principle."

10) Benedict Anderson 지음, 윤형숙 옮김, 「1장 서장」,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5쪽, 주석 12)에서 재인용.

11) 같은 책, 25쪽.

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만들어 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택동의 문예이론 속에 나타나는 ‘민족’과 ‘중국적 풍격’이라는 언설들은 독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모택동 문예사상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족 개념 역시 모택동이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당시 중국의 정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 되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과 『문예강화』가 촉발시킨 민족형식 논쟁 속에서 ‘구형식의 활용’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구형식의 활용’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구형식에 내재된 봉건성을 과연 혁명적 내용과 결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연 무엇이 구형식이며(구형식의 선택) 수많은 구형식 중에 무엇을 혁명적 내용과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모택동의 ‘중국적 풍격’에 대한 강조와 그에 따른 민족형식 논쟁은 “민족주의가 민족을 탄생시킨다.”는 Gellner의 주장처럼 현재가 과거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과정인 셈이다. 운유민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이는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sup>12)</sup>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들의 이론적 전개는 다분히 서구의 역사적 사례들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그 이론적 근거 또한 서구 유럽의 역사적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Gellner의 이론과 같은 경우 산업

12) 프라센지트 두아라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59쪽. “민족은 ‘역사’를 통해 지속되는 하나의 精髓로서 민족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동시에 ‘역사’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롭다.(근대적 자각이란 결국 모든 측면에서의 역사의 종언이다.)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은 특히 이러한 주장에 대한 내적·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민족이라는 공간의 既恒常性(already-always)으로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날마다 민족적 정수를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재생산해야 한다. 동시에 근대 문명의 ‘계몽’담론은 모든 사회가 근대성과 일체화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근대성과 진보에 헌신하는 것은 새로운 것의 찬양과 낡은 족쇄의 분쇄에 헌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국민국가는 古代나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국민-국가의 미증유적인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민-민족이 ‘역사’의 자각적인 주체로서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국가가 이 주체성을 표상한다는 점은 물론 국민국가가 민족을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13) 실례로 홉스봄은 저서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종족과 민족주의의 관련성에

화 과정을 민족형성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 산업화와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중국 고대 사회와 1940년대의 전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특유한 민족의식은 더욱 고취되었다. 중국은 이미 사마천의 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중화관에 입각하여 ‘천하관’을 확립하였다. 중국은 근대국가 건설 과정 이전부터 타자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유럽과는 달랐다.<sup>14)</sup> 따라서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 필수적인 민족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유럽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다. 모택동 역시 근대 국가 건설 담론이 가장 격렬한 시기 청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또한 직접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중국적 특성에 입각한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을 자신의 이론 속에 투사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택동의 문예사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민족 개념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형성된 ‘중국적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상 중국이란 개념이 근대적인 국가개념으로 정립된 것은 그야말로 근대적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중적의 그러한 부정적인 면(중족에 의해 피아를 구분하는)은, 중국, 한국 및 일본에서처럼 국가 전통과 같은 어떤 것과 융합될 수 있거나 융합돼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언제나 원형민족주의와 무관하다. 위의 나라들은 중족이라는 면에서 거의 또는 완전히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된 역사적 국가의 극히 희귀한 사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나라에서는 중족과 정치적 충성이 실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의 경우, 청말 排滿 운동이 근대 중국 민족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물론, 중국의 근대 민족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서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 설정이 중국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자세한 논의는 Prasenjit Duara의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과 *SOVEREIGNTY and AUTHENTICITY*를 참조할 것.

- 14) 근대 국가 형성 이전의 세계체제를 대체적으로 ‘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데, 가라타니 고진이 설정하고 있는 ‘제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제국은 농업공동체를 지배하는 국가들 위에 군림한다. 2. 제국은 다수의 국가, 다수의 종족을 포섭한다. 따라서 제국은 하나의 부족이나 도시국가와는 이질적인 원리를 가져야 한다. (중략) 로마제국은 처음부터 다민족을 포함하는 제국인 동시에 로마라는 도시국가였고, 그 신들을 숭배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그 모순은 크리스티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승인되었을 때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때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제국은 자신에 속하는 국가와 부족들의 문화·법 제도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국이 관여하는 것은 부족과 국가 자체에 대한 지배보다 그것들의 ‘사이’, 다시 말해 부족·국가 간 교통·통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국의 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다. 4. 제국의 특징은 제국의 언어를 갖는 데 있다. 제국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무수하지만 그런 것은 ‘언어’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세계 언어 혹은 보편적 언어이다.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음성에서 독립하여 外在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18\*20쪽 참조.

인 현상이다. ‘中國’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2000년 전이었는데, 그것은 당시 주(周)왕조가 사용한 것으로, 주나라의 수도만을 일컫는 개념이었다. 또한 중국의 고전에서 ‘민족’ 혹은 ‘중국민족’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sup>15)</sup> 이처럼 중국은 유사 이래로, 오랑캐와 자신을 구분하는 화이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민족관(nation)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족의 문명과 문화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에 포함되지 않는 타자는 오랑캐(夷)로 배제되는 ‘천하관’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편 전쟁 이후, 양계초 등을 비롯한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은 중국과 타국과의 관계를 군신 관계로 파악하는 천하관을 버리고, 타국이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하고 중국 스스로도 세계 속의 한 부분으로서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특히 양계초는 중국의 고립성을 비판하고 중국 국민들에게 서구와 같은 국가 개념이 없음을 한탄하며,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념에 근거한 애국심을 가진 ‘국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양계초의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인민을 설명하는 술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며 이는 곧 세계관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 중국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James Harrison은 ‘Culturalism to Nationalism’, 즉 ‘문화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문화주의는 말 그대로 문화에 의해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통 중국 사회에 있어서는 유교문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한족의 문화만이 진정한 문화로 인정되었고, 그 외의 문화는 모두 야만으로 규정되었다. 때문에 문화주의는 모든 국가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교문화의 수용 여부만이 그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sup>16)</sup>

양계초에게 문화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전환은 타국의 문화를 동등하게 인

15) SUISHENG ZHAO 지음, "The Origins of Chinese Nationalism",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45쪽.

16) Edited by JONATHAN UNGER, *ONE. CHINESE NATIONALISM, CHINESE NATIONALISM*, An East Gate Book, 2쪽.

정하는 동시에, 자국을 세계 속의 일부로 인식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양성하는 과정이었다. 민족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중국은 ‘천하’가 아닌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 이제 더 이상 臣 혹은 백성으로 남지 않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국민’이 되어야 했다. 중국의 민족주의 역시 유럽의 민족주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그 시발점에 있어서는 국가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탄생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문화주의라는, 이미 자신을 규정하는 틀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던 중국 사회가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전이됨에 있어 유럽과 아무런 차이점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 한 통계에 따르면 청조외교사록(淸朝外交史錄)에서 ‘主權’이라는 단어는 1875에서 1894년 사이, 백페이지 당 한 번 등장하지만, 1895년에서 1899년 사이에는 2.5배로 증가하고, 1900에서 1901년 사이에는 8.8배, 1902에서 1910년 사이에는 22배로 증가한다.<sup>17)</sup> 불과 35년이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급속한 주권 개념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한 그렇다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문화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전환 이전에, 이미 어떠한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현상을 John Fitzgerald는 ‘The Nationless Stat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Gellner를 비롯한 기존의 민족 형성 이론에서 국가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국가 없는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Fitzgerald는 ‘nationless state’ 개념을 통해 ‘근대적 민족 국가’ 개념에서 자유로운 색다른 개념의 공동체(proto-state)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sup>18)</sup> 문화주의와 같이 전통적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독특한 틀을 가진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중국’이라는 공동체의 붕괴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20세기 초, 가장 두려운 것은 이데올로기, 문화의 붕괴 혹은 민족의 해체가 아닌 통일된 국가(the unitary-state)의 해체였다.<sup>19)</sup>

17) SUISHENG ZHAO 지음, “The Origins of Chinese Nationalism”,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49쪽.

18) Edited by JONATHAN UNGER, “Three. Nationless State: The Search for a Nation in Modern Chinese Nationalism”, *CHINESE NATIONALISM*, An East Gate Book, 58쪽.

Fitzgerald가 주장하고 있는 ‘nationless state’는 결국 왕조의 교체는 있었지만 끊임없이 통일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통일체 지향성 (attachment to unitary)’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이라는 통일된 공동체는 특정한 왕조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국가라는 이상(the ideal of a unitary state)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sup>20)</sup>

‘문화주의’와 ‘nationless state’는 중국적 민족주의의 특색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중국은 이미 근대국가 탄생 이전부터 자신을 타자와 구분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붕괴와 함께 서구적 모델에 근거한 민족주의가 문화주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인들의 이상적 통일 공동체라는 이념은 깨지지 않았다.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는 문화주의에서 민족주의라는 세계관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중국이라는 통일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5·4 운동과 중국의 공산 혁명을 비롯한 근대 중국의 혁명에 있어서, 국가는 민족의 산과 역할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의 아버지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sup>21)</sup> 즉,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 혁명은 공동체의 파괴가 아닌 공동체를 이미 상정한 상태에서의 新질서를 확립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국가로부터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국가(혹은 국가에 상응하는 그 무엇)를 배태하고 있는 셈이다.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이론들과 중국적 특성에 근거한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모택동 문예이론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대다수의 문학사에서 모택동을 비롯한 근대 이후 중국 지식인들이 사용하고 ‘중국 민족’ 혹은 ‘중화 민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이란 그들의 언어 속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상정된

19) 같은 책, 65쪽, “Indeed, nationalist thought generally assumed that the danger to which China was most vulnerable in the twentieth century was the destruction neither of ideology or culture, nor even of a national people, but the disappearance of the unitary state.”

20) 같은 책, 65쪽, “China survived the death of Confucianism and much else besides because the idea of China was attached to the ideal of a unitary state rather than to the ideology of a particular regime.”

21) 같은 책, 58쪽, “In the Chinese revolution, the state was not just midwife at the birth of the nation but in fact its sire.”

개념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문장과 이론 속에서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민족’이라는 용어 속에는 다차원적이고도 복잡한 함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5·4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중화를 내세우며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새로운 ‘중국적 풍격’을 주장하는 모택동 문예 이론 속의 ‘민족’ 개념을 그것의 함의와 실제적 효과와 상관 없이 축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 3. 모택동의 문예이론 - 계급과 민족의 이중변주

모택동의 문예이론 역시 민족주의 일반이론과 아편 전쟁 이후 성립되는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 담론 환경과 연계하여 읽어야 한다. 1917년 모택동은 『新青年』에 「二十八畫生」이란 글을 게재하는데, 이 글에서 그는 “국력이 허약해지고, 武風(군사적 힘)이 약해, 민족의 체질이 날로 약해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國力茶弱, 武風不振, 民族之體質日趨輕細, 此甚可憂之現象也)”<sup>22)</sup>라고 당시 중국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언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17년이라는 5·4 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모택동의 글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붕괴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시도가 막 시작되었을 당시, 청년 모택동은 이미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글 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모택동이 언급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택동 역시, 앞에서 언급한 ‘문화주의에서

22) 毛澤東, 「二十八畫生」, 『新青年 第3卷 第2號』(1917年 4月) - Stuart R. Schram 지음, 田松年 楊德 등 옮김, 『第一章 從學生運動到農民運動(1917-1927)』, 『毛澤東的思想』(원제: The Thought of Mao Tse-Tung), 4쪽에서 재인용

민족주의로의 전환'과 통일된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는 'nationless state'라는 당시의 담론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모택동은 당시 대다수의 지식인들과 같이 중국이라는 통일된 공동체(nationless state)를 유지시키기 위해 근대적인 민족국가(nation-state)의 건설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었다. 1917년 모택동이 발표한 글에 나타나는 '민족'과 '국가'라는 언설은 결국 청년 모택동이 이러한 당시의 담론 환경에 처해있었음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흔적들인 셈이다.

실제로 모택동은 長沙에서 공부할 당시, 그의 윤리학 선생이었던 楊昌濟의 글을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 楊昌濟는 “각 국가는 각 개인의 각기 그들만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듯, 그 자신만의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란 다른 국가에 완전히 이식되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의 국가는 인간의 육체가 유기체인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유기적 총체이다. 국가는 각 부분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각 부분이 분해되어 버린다면, 국가는 소멸해 버릴 것이다.”<sup>23)</sup>라고 주장한다. 양창제의 이러한 주장은 nationless state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통일된 국가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당시 중국 근대적 지식인들의 국가관·민족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창제의 이러한 국가관에 모택동이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택동이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 특유의 민족국가 건설 담론 속에 깊이 발 담고 있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sup>24)</sup> 그는 長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新青年』에 글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민족국가 건설 담론을 받아들인 것이며, 마르크스주의는 외부의 침입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대 민족국가 건립을 목표로 했던 청년 모택동에

23) Stuart R. Schram 지음, 金東式 옮김, 「II. 長沙에서의 학창시절」, 『毛澤東』, 박영사, 47쪽, 주석⑥에서 재인용

24) “1920년 여름에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어느 정도 행동적으로도 맑스주의자가 되었고, 이때부터 나는 자신을 맑스주의자로 자처했다.” - Stuart R. Schram 지음, 金東式 옮김, 「II. 長沙에서의 학창시절」, 『모택동』, 博英社, 65쪽, 주석⑭에서 재인용

의해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마르크스주의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선택한 모택동 문예사상의 사상적 특색은 『신민주주의론』과 『문예강화』를 통해 드러난다. 모택동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신민주주의 문화를 “人民大衆의 反帝反封建 문화이며, 지금은, 항일 통일전선의 문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모택동 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민족관과 국가관 계급관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인민대중<sup>26)</sup>’은 그의 계급 개념을, ‘반제반봉건과 항일 통일 전선’은 그의 민족·국가관을 나타낸다. 또한 모택동은 『문예강화』에서 인민대중은 “전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인, 농민, 병사 그리고 도시의 소자산계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택동의 문예사상이 중국의 독특한 민족주의 담론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각 개념들 간의 길항관계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대중과 반제반봉건, 항일 통일 전선의 개념이 서로 분절되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동일시 된 채,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25) 영미권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사회주의가 “버려졌다.(abandoned)”고 평가하며,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실상 사회주의 이념이 아닌 강력한 근대국가 중국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Edited by Arif Dirlik, Paul Healy, Nick Knight, *Critical Perspectives on Mao Zedong's thought*, 9쪽, "HUMANITIES PRESS NEW JERSEY"를 참조할 것.(After all, some scholars have crowed, socialism is not only dead in the former Soviet empire, it has been virtually abandoned in places like China and Vietnam. Not only is this seen as demonstrating the overwhelming superiority of capitalism as a system, it reintroduces the suspicion that the real motivation for the Chinese Revolution was not so much the desire for socialism, but the older desire for wealth and power for China. The language of Marxism, in which Mao and other Chinese revolutionaries often spoke prior to 1949, deflected attention from their real intentions which had far more to do with nationalism and modernization, with the reassertion of China's former glory, than with achievement of socialism.)-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택동의 문예이론 속에 나타나는 언설들을 “대중화 문제”에만 연관시켜 고찰하려는 시도는 모택동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와 연계시키려는 중국 주류 학계의 이데올로기적 학문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인민대중’이란 용어는 후에 『문예강화』에서 “공인·농민·병사·도시자산계급”이라는 계급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다. 모택동의 언급 속에서 인민대중과 반제반봉건, 항일 통일전선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지만, 실상 계급 개념과 민족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공존하기도 힘든 개념이다.<sup>27)</sup>

모택동은 레닌의 공인과 농민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 이후의 지배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키 나가면서, 레닌의 관점을 넘어서게 된다. ‘중립적’ 혹은 ‘민족적’ 부르주아 개념을 지배계급의 범위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sup>28)</sup> 그의 계급 개념이 사회주의 원론에 주목하기 보다는 중국적 상황, 즉 강력한 민족국가 성립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택동의 이러한 독창적인 계급 개념은 결국 민족국가 건설 과정이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이렇게 보았을 때, 『신민주주의론』과 『중국공산당의 민족전쟁중의 지위(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 『문예강화』를 통해 모택동이 인민을 규정하고 있는 언설<sup>30)</sup>은 곧 계급적 규정을 통해 민족 구성원을 확정짓고 동시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전국가적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27) Edited by JONATHAN UNGER, "ONE. CHINESE NATIONALISM", *CHINESE NATIONALISM*, An East Gate Book, 64쪽에서 인용. "Nation and class are by no means identical concepts, but Asian Marxist imagined them as in fact co-extensive."

28) Arthur A. Cohen 지음, Mao and the State Form,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Phoenix Books, 78~79쪽.

29) 이러한 시각은 구추백의 견해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구추백은 중국 학생운동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사회주의에 편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구추백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5·4 초기 대다수의 지식 청년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구추백은 "매우 싫어하던 자본주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자본주의 전단계의 사회주의에서 곧바로 미래의 사회주의 낙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공상적 무정부주의자들의 이념에 매혹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가 러시아 혁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그가 이해한 바대로, 러시아사 전체 군주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 계급과 단체들이 중국 사회를 재건설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협력하며 의제에 밀붙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고 제국주의에 맞섬으로써 사회주의를 중국에 실현시킬 것을 바라고 있었다. Pickowicz, Paul G 지음, 심규호 옮김,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문예이론 : 구추백(瞿秋白)의 영향』, 청년사, 43~48쪽 참조, 1991.

30) "중국 인민대중이 즐겨 보고 듣는 중국적 작품과 풍격", 『신민주주의론』,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노동자·농민·병사·도시 소자산 계급과 지식인)이 중화민족의 최대 부분이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대중이다. 우리의 문예는 위에서 언급한 네 종류의 사람을 위한 문예이다.", 『문예강화』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급적 규정을 통해 민족구성원을 확정짓는 과정 속에서 계급개념은 민족개념에 종속되고 만다. 본래 계급이란 마르크스의 이론 속에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상 마르크스 이론 그 자체에서도 계급관계는 사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독되어야 할 것으로서 존재한다.<sup>31)</sup> 또한 민족이란 개념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귀속력을 강화시키는 힘을 갖는 동시에 그 힘을 갖추기 위해 ‘민족이란 무엇인가’, 즉 민족에 속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을 끊임없이 규정하게 된다. 요컨대 계급은 분절의 개념이지만 민족의 통합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이한 성질의 개념들이 모택동의 언설 속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통합·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신민주주의를 ‘민족적’이라고 특징짓고, “그것은 제국주의의 압제에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주장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32)</sup>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全盤西化’에 반대하고,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진리를 중국 혁명의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통일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민주주의 문화의 주인공은 노동자·농민·병사이다. 모택동의 사상 속에서는 마르크스 이론 역시 민족해방의 목적에 맞게 개조되어야 하며, ‘노농병 중심’은 곧 그러한 민족해방의 주체를 마르크스주의적 언설을 차용해 규정한 것이다.

결국 모택동은 ‘민족의 구성원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급 관점에 입각하여, 그 구성원을 확정지은 것이다. 모택동이 설정하고 있는 민족-계급 관계 속에서 ‘해독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계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은 민족해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성원을 확정짓는 기준인 것이다. 그 결과 계급은 민족 담론 속에서 고착화되어 버리고 만다.<sup>33)</sup>

31) 가라타니 고진 지음, 김경원 옮김, 「계급에 대하여-나쓰메 소세키론 1」,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이산, 160쪽.

32) 毛澤東, 「新民主主義文化」, 『毛澤東選集』, 人民出版社 1966, 699쪽.

33) 실례로 1956년 중국작가협회 제2차 대회에서 전형의 문제를 논하며 “사회주의혁명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병사 중에서 선진적인 인물과 그들의 영웅적 사적이 작품의 전형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되었으며, 1960년대 문혁시기에는 비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은 그 출신에 따라

비록 모택동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했지만, 그 사상의 출발점은 결국 민족주의였고, 최종적 목표 역시 철저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 보다는, 사회주의를 이용한 주체적인 근대 민족-국가 건설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모택동의 언설 속에서 ‘중국화 된 마르크스주의’로 표현된다.

이렇게 모택동의 문예사상을 중국의 전체적인 민족 담론 형성 과정 속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중국적 풍격’ 혹은 ‘새로운 민족문화’ 등의 언설이 대중화 과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의 실제적인 효과는 대중화와는 반대로 민족적 요청에 따라 계급 구성을 확정지음으로써 문예 대상의 폭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모택동의 문예사상 속에 나타나는 민족과 대중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고찰하지 않고 『신민주주의론』과 『문예강화』 등의 언설을 대중화 논의로만 몰아가는 기존의 평가는 재음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4. 소결 및 가능성의 탐색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중국적 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 탐색은 모택동 문예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 간의 길항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서 모택동의 문예사상을 대중화로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가 모택동 문예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민족’, ‘중국적 풍격’ 등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이를 곧바로 대중화에 연결시키려는 평가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었다.

모택동 역시 중국 특유의 ‘천하관’이 붕괴하고 새로운 민족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기 시작할 당시의 여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유의 출발점을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 두고 있다. 때문에 그의 사상 속에서 계급과 민족은 서로

뒤엎혀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다. 특히 모택동의 문예관이 해방 이후 당대 중국에서 초래했던 ‘계급 의미의 변질과 고착화’를 생각해 본다면 모택동 문예사상 속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또한 모택동의 문예사상이 촉발시킨<sup>34)</sup> 『민족형식논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민족형식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문제는 ‘구형식 이용’의 문제로 과연 구형식이 혁명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사회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민족혁명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이 논쟁은 하지만 애초의 그 의도와는 달리 그 실제적인 창작성과를 통해서는 다른 측면의 이론적 탐색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논쟁의 결과 실제로 구형식을 이용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채용한 ‘구형식’이라는 것도 모택동의 주장한 것처럼 후진적인 것을 걸러낸 ‘혁명적 민족문화’에 해당된다고 평가되는 것에 국한된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현재의 필요에 의해 ‘민족적인 것’을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적 시각에 의해 취사선택된 ‘발명된 전통’이 되는 것이다.

또한 모택동이 주장하고 있는 바, 노동자·농민·병사를 위주로 한 작품의 창작은 결국 그들의 생활을 위주로 한 창작 경향을 낳게 되었는데, 과연 이들의 생활이 있는 그대로 표현 되었는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Chalmers A. Johnson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농민의 민족주의 성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들의 관심은 오직 적은 세금과 생존이었다.<sup>35)</sup> 따라서 문학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농민적 가치 또한 공산당에 의해 재조직된 형상화라고 보아야

34) 『민족형식논쟁』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모택동의 『신단계론』을 그 기점으로 삼는 논지가 있는 반면, 1939년 이전인 1938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모택동의 『신단계론』이 이 논쟁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희준, 『중국 현대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할 것.

3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almers A. Johnson의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및 Tony Saich 등이 편집한 *NEW PERSPECTIVES ON TH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등을 참조할 것.

할 것이다.<sup>3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큰 틀에서 민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민족과 민간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민족형식 논쟁』은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를 공산당의 필요성에 맞게 재조명함으로써 근대 민족국가 담론에서 이탈되어 있는 ‘민간’이 민족 국가 건설 과정에 종속되어 있는 ‘민족’으로 포섭·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모택동 문예사상 속 민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그것에 대한 ‘대중화’ 일변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보다 다차원적인 의미망을 짚어내게 해준다. 또한 모택동의 문예사상을 넘어 그로부터 시작된 『민족형식 논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발점도 제시해 주고 있다. 복잡한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40년대 중국의 민족주의 담론을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비균질적인 담론의 결들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毛澤東, 『毛澤東 選集』, 人民文學出版社, 1966.  
 北京師範大學中文系現代文學教學改革小組編, 『中國現代文學史參考資料 第一卷』, 高等教育出版社, 1968.  
 周揚, 『周揚文集 第一卷』, 人民文學出版社, 1984.  
 王瑤, 『王瑤全集 第四卷』, 河北教育出版社, 1990.  
 周錫, 『中國現代文學史料術語大辭典 2』, 智燕出版社印行, 1988.  
 劉綬松, 『中國新文學史初稿 上·下卷』, 人民文學出版社, 1982.  
 Stuart R. Schram 著/田松年 등 譯, 『毛澤東的思想』, 中國人民出版社, 2005.  
 譚好哲, 任傳霞, 韓書堂 著, 『現代性與民族性』,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路文彬, 『歷史想像的現實訴求』, 百化洲文藝出版社, 2003.  
 汪暉,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上卷 第二部』, 三聯出版社, 2003.

36)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메시스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농민의 가치를 공산당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방법과 그 논리의 구조이다.

- 王曉明, 『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 下卷』, 東方出版中心, 2003.
- 復旦大學歷史學系 復旦大學中外現代化進程研究中心 編, 『近代中國的國家形成與國家認同』, 上海古籍出版社, 2003.
- Levenson, Joseph R, *LIANG CHI-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1967.
- Edited by JONATHAN UNGER, *CHINESE NATIONALISM*, An East Gate Book, 1996.
-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Blackwell Publishing, 1983.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 Duara, Prasenjit,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2003.
- Edited by Wei, C. X. George, Liu, Xiaoyuan, *Chinese Nationalism in Perspective*, Greenwood Press, 2001.
- Edited by Saich, TonyVan de Ven, Hans J, *NEW PERSPECTIVES ON TH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An East Gate Book, 1995.
- 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Phoenix Books, 1964.
- SUIHENG ZHAO, *A Nation-State BY Constr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Edited by Arif Dirlik, Paul Healy, Nick Knight, *Critical Perspectives on Mao Zedong's thought*, HUMANITIES PRESS NEW JERSEY, 1997.
- Stuart R. Schram 지음, 金東式 옮김, 『毛澤東』, 박영사, 1977.
- 전형준, 『현대중국의 리얼리즘 이론』, 창작과 비평사, 1997.
- 吉澤成一郎 지음, 정지호 옮김, 『애국주의의 형성』, 논형, 2006.
- Renan, Ernest 지음, 신행선 옮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 溫儒敏 지음, 김수영 옮김, 『현대중국의 현실주의의 문학사』, 文學과 知性社, 1991.
- 김시준, 『중국 당대 문학사』, 소명, 2005.
- 汪 暉지음, 이옥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창작과 비평사, 2003.
- 백영길, 『중국 항전기 리얼리즘 문학론쟁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Duara, Prasenjit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0.
- Anderson, Benedict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 Hobsbawm, Eric John 지음,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毛澤東 지음, 이옥연 옮김, 『모택동의 문학예술론』, 논장, 1989.

柄谷行人 지음, 송태욱 옮김, 『일본 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6.

Pickowicz, Paul G 지음, 심규호 옮김, 『중국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 : 구추백(瞿秋白)의 영향』, 청년사, 1991.

郭若平, 「毛澤東新民主主義文藝觀形成的思想資源」, 2003年 9月.

黃科安, 「文藝方針與建構現代民族國家的意識形態」, 『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005年 1月.

李桂起, 霍洪典, 「不可磨滅的歷史光輝 - 略論『講話』對當代文學批評的意義」, 『德洲師專學報』, 2000年.

朱秋德,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的思想溯源」, 『兵團教育學院學報』, 1999.

松 莉, 「試論『講話』誕生的文化遷延」, 『新視界』

孟繁華, 「政治文化與中國當代文藝學」

김희준, 『중국 현대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金良守, 『1940년대 연안의 민족형식 논의구조에 대하여』, 한국중어중문학회, 中語中文學, 1996.

장태진,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에 나타난 문예론 연구』, 대한중국학회, 중국어 문론집, 1989.

### < 中文提要 >

一般來說, 毛澤東的《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被評價為‘實現文藝大眾話的經典’。在中國主流文藝批評框架內, 毛澤東的文藝理論是中國文藝大眾話的最高成就、最基本的經典。從這樣的框架內, 民族化是為大眾化的另外手段, 而且民族化和大眾化之間沒有任何矛盾或者衝突。但是在西方學術界的民族問題研究成就里, 民族是個政治上的概念, 而且是個近、現代的特殊現象。民族或者民族化這個詞語里面, 存在着非常複雜的政治、歷史的勢力關係。總而言之, 大眾化不是跟民族化一樣的概念。大眾化這個詞有著‘包括’的內涵。但‘民族化’是基本上‘排除’的概念。具體來說, 民族這個概念成立的基本條件是‘我’和‘他’之間的分別或者區別。可是毛澤東的文藝理論裡面, 沒有對大眾化和民族化這些概念之間的任何苦悶。況且更深刻的問題是, 雖然毛澤東理論上, 存在着大眾化和民族化之間的緊張關係, 但是任何文學史和理論, 從來沒有批判地考察這些問題的。所以我們要用毛澤東理論框架的外部理論

或者視角來，進行分析毛澤東理論裡面的大眾化和民族化的互相關係。本稿從這樣的觀點出發，試圖考察毛澤東的《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關鍵詞：毛澤東 文藝理論, 民族-國家, 民族主義